

KOSDAQ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라온시큐어 (042510)

성장하고 있는 AI 보안, 인증 플랫폼 강소기업

체크포인트

- 라온시큐어는 신원 인증 및 검증 기술력을 기반으로 계정접근권한 관리, 화이트햇 컨설팅,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신성장동력으로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사업화와 에이전틱 AI 관련 보안 사업 등을 제시 중
- 투자포인트는 1) 모바일 신분증 사업 성장성, 2)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 성장 기대, 3) 중장기적으로 신사업 성장 기대
- 리스크 요인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
- 라온시큐어는 2026년 PER 17.8배로 거래 중. 향후 모의해킹 서비스 관련 동사 기술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관련 해외 수주가 가시화되거나, 에이전틱 AI 기반 보안 자동화 관련 사업화가 뚜렷하게 표면화된다면, 동사 기업가치는 시장 소외 상황을 딛고 상승할 개연성 있음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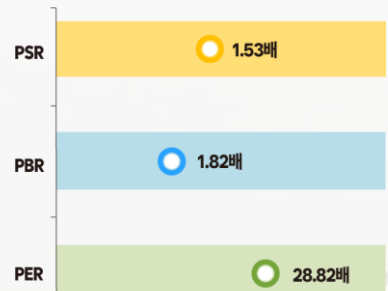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라온시큐어 (04251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지은 jekim0216@kirs.or.kr

KOSDAQ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라온시큐어는 생체인증 기반 신원 인증, 모의해킹, 모바일 신분증 솔루션 전문기업

라온시큐어는 다양한 보안 인증 솔루션, 화이트햇 컨설팅,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강소기업.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솔루션 사업 부문 49.5%, 서비스 사업 부문 51.3%, 기타(연결대상 종속회사 연결조정) -0.8%

디지털 ID 시장은 2025 ~ 2031년 기간 연평균 20%로 고 성장 전망

디지털 ID는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인증하는 전자적 수단임. 디지털 ID는 실물 신분증 대비 편의성,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 글로벌 디지털 ID 시장은 2025년 442억 달러에서 2031년 1,321억 달러까지 고 성장할 전망. 한국은 디지털 ID의 구축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과 활용 단계에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디지털 ID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신분증 확산의 주도국임.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 체계는 블록체인 기반 DID를 적용한 국가 단위 신원 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국가들과는 차별화

기존 사업 성장과 신사업 태동이 기대되는 2026년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38억 원(+2.0% YoY), 28억 원(+41.4% YoY)을 기록. 2026F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699억 원(+9.6% YoY), 45억 원(+60.4% YoY) 전망. 기존 사업 매출 성장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제품믹스 개선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 추세 기대. 신성장동력인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사업화와 에이전틱 AI 관련 보안 사업 가시화 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라온시큐어에 대한 시장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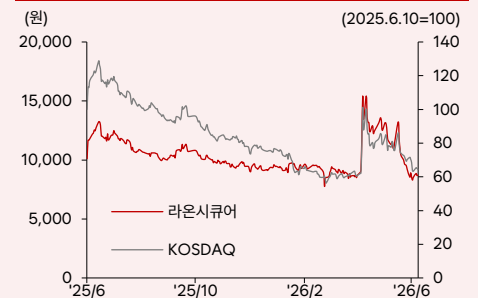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468	518	625	638	699
YoY(%)	8.0	10.7	20.5	2.0	9.6
영업이익(억원)	43	-17	20	28	45
OP 마진(%)	9.2	-3.2	3.1	4.4	6.4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7	42	40	34	51
EPS(원)	862	519	359	302	454
YoY(%)	흑전	-39.9	-30.9	-15.8	50.5
PER(배)	12.2	23.8	28.7	30.2	17.8
PSR(배)	1.7	1.9	1.8	1.6	1.3
EV/EBITDA(배)	9.3	85.2	18.8	13.9	7.8
PBR(배)	21	3.0	2.3	1.9	1.5
ROE(%)	19.3	9.9	8.3	6.5	9.0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6/19)	8,080원
52주 최고가	15,410원
52주 최저가	7,750원
KOSDAQ(06/19)	966.59p
자본금	280억원
시가총액	897억원
액면가	2,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67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90억원
외국인지분율	2.95%
주요주주	이순형 외 7인 39.0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5.0	-6.9	-29.0
상대주가	-17.9	-17.8	-46.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라온시큐어는 FIDO 생체인증 기술력 기반의 보안 인증 솔루션 전문기업

**라온시큐어는 2012년 설립된
AI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2012년 10월 설립되었다. ‘즐겁고 안전한 AI세상을 만들어간다’라는 미션과 ‘모두에게 신뢰받고 친숙한 AI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을 기업 비전으로 내세웠다. IT 보안/인증 전문기업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사,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다양한 기업/산업에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은 비밀번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신원 인증 방식이다. 지문·얼굴·홍채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술로, FIDO는 생체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하며, 원격 서버와는 비대칭키 암호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으로 인증 결과만 주고받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피싱/도용 위험을 현저히 낮추게 된다.

2012 ~ 2017년 기간은 라온시큐어에게 있어 태동기이자 초기 성장기였다. 라온시큐어는 동 기간 국내 모바일 보안, 생체인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FIDO 생체인증 사용자 2,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에 모바일 보안, 인증 솔루션 전문업체로서 존재감을 각인했다. 이 시기 동사는 국내/외 고객사 1,000곳 이상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설립 당해인 2012년 라온시큐어 연매출액은 139억 원이었으나, 2017년 연매출액은 212억 원으로 성장했다.

2018 ~ 2023년 기간 라온시큐어는 국내 디지털 신원(DID) 인증 시장을 주도적으로 확장시켰다. 동사는 다양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을 설계/개발하였고, 2021년부터 상용화에 성공했다. 한편, 라온시큐어는 국내 최초로 공개키 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 기반 의료 데이터 플랫폼도 개발했다. PQC 기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은 양자 컴퓨터로도 안전한 공개키 암호(PQC)를 적용하여 의료기관·환자·디지털치료제(DTx) 연계 과정의 인증/전송 보안을 강화하는 개방형 데이터 중계 플랫폼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라온시큐어 컨소시엄이 과기정통부-KISA의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 의료 분야에 선정되어, Kpqc 및 NIST 표준 기반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라온시큐어는 연매출액 518억 원을 기록, 기업 설립 11년 만에 연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부터 라온시큐어는 신사업을 다각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보다 글로벌 진출 노력을 강화하였다. 신성장동력으로 ‘에이전틱 AI’ 분야를 주목하여 관련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처럼 판단하는 나의 또다른 대행자가 생기는 개념으로,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지만 향후 에이전틱 AI 관련 권한 오남용 사례/사고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 니즈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관련 보안 수요를 사업화할 예정이다. 즉 ‘AI 보안담당자’를 설정하는 등 2H26 중에 관련 신사업을 런칭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관련 매출 발생을 기대 중이다. 한편, AI 기반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 모바일 백신 관련하여 동사는 무료 제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였고, 향후 B2B 형태의 관련한 매출액 발생을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신원(DID) 인증 해외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동남아, 남미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모바일 신분증 사업화 프로젝트 관련하여 동사는 관련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2024년 이후 라온시큐어는 연매출액 600억 원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향후 신사업 가시화와 동남아 중심의 디지털 신원(DID) 인증 해외 사업이 본격화될 시 추가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라온시큐어는 생체인증(FIDO) 기반 보안 기술을 통해 개인과 AI 등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기술을 통해 사람과 AI 에이전트 간 신원·권한·접근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에이전트 AI 시대에 요구되는 권한 인증과 접근제어 등을 관리하며,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여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서 견조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Q26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4개사

라온시큐어는 2025년말 기준으로 총 5개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 중이다. 이 중 인비즈넷 보유 지분을 1Q26에 매각하여 1Q26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4개사이다.

1)라온메타(동사 지분율 62.5%)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실습 플랫폼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가상 실험동물을 부검하거나, 지게차를 가상으로 운전하는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서비스명은 '라온메타데미'). 2)DIGITAL TRUST NETWORKS INC(동사 지분율 100.0%)의 경우 미주 사업을 위한 해외법인으로 FIDO 생체인증, 디지털 ID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OMNIONE PTE.LTD(동사 지분율 99.1%)의 경우 싱가포르 해외법인으로 동남아 지역 사업을 위한 해외법인이다. 디지털 ID 관련 사업 위주로 사업 전개를 준비 중이다. 4)라온벤처스(동사 지분율 100.0%)는 벤처기업투자를 위한 법인이다.

라온시큐어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기업명	설립일	지분율	최근사업연도 총자산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라온메타(주)	2024.05.31	62.5%	893	-102
라온벤처스(주)	2025.11.11	100%	2,986	-25
DIGITAL TRUST NETWORKS INC	2017.05.23	100%	456	-377
OMNIONE PTE.LTD.	2020.04.29	99.13%	969	-6

주: 1Q26말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솔루션 사업 49.5%, 서비스 사업 51.3%, 기타(연결조정) -0.8%

라온시큐어 매출액은 크게 솔루션 사업 부문, 서비스 사업 부문 2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솔루션 사업 부문 49.5%, 서비스 사업 부문 51.3%, 기타(연결대상 종속회사 연결조정) -0.8%이다. 각 부문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솔루션 사업 부문은 제로 트러스트

및 국가망 보안체계 구현 관련

보안 솔루션 등으로 구성

1) 솔루션 사업 부문(매출액 중 49.5%)

솔루션 사업 부문은 사용자 신원과 접근 권한을 다층적으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및 국가망 보안체계(N²SF) 구현 관련 보안 솔루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솔루션은 금융·공공·기업 환경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솔루션 사업 부문의 대표 품목으로는 통합접근관리 관련, PC 보안 관련, 모바일 보안 관련, 유비쿼터스 PKI(공개 키 기반구조)가 있다.

통합접근관리 관련 주요 제품은 TouchEn이다. 로그인 또는 서비스 계정의 통합 인증, 통합 권한관리 기능을 주로 제공한다.

PC 보안 관련 주요 제품은 TouchEn, TouchEn Key, TransKey 등이다. 용도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의 키보드 보안, 웹보안, 백신, 방화벽이다.

모바일 보안은 솔루션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주요 제품으로 OnePass, TouchEn, TouchEn mTransKey 등이 있다. 동 솔루션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 기반 신원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OnePass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FIDO 얼라이언스의 FIDO Certified 인증을 획득한 다중인증(MFA) 솔루션으로, 금융·공공·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구축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참고로 당사는 FIDO 얼라이언스 이사회 멤버(Board Member)로서 글로벌 인증 표준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증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및 주도력을 확보하고 있다. OnePass 솔루션은 국내 생체인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80% 추정)를 지속 중이다. 유비쿼터스 PKI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암호인증,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Key#biz, Key#XML이 있다.

서비스 사업 부문은

화이트햇 컨설팅, IDaaS 인증,

블록체인서비스(BaaS)로 구분

2) 서비스 사업 부문(매출액 중 51.3%)

서비스 사업 부문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자격 인증 플랫폼과 통합 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은 다시 화이트햇 컨설팅, IDaaS 인증, 블록체인서비스(BaaS)로 구분된다. 각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은 화이트해커 조직인 화이트햇센터를 통해 정보보호 컨설팅(ISMS·ISMS-P), 취약점 분석·평가, 블라인드 모의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온 IS 컨설팅, 라온 Risk Proof 서비스가 대표적인 동사 화이트햇 서비스이다. 2025년에는 구축형 모의해킹 서비스 라온 PTaaS(Penetration Testing as a Service)를 출시하여 기업이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당사는 국가 지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서, 검증된 전문인력들을 기반으로 화이트해커 컨설팅 서비스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IDaaS 인증 사업은 스마트폰 USIM에 공동인증서를 발급/저장해 주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환경에도 공동인증서를 저장해주기도 한다. 동 인증은 피싱 사기를 방지하고, 피싱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로, 주요 제품으로는 USIM 스마트인증 스마트사인, 스마트앤티피싱 모바일이 있다.

블록체인서비스(BaaS) 사업은 다시 디지털 인증, NFT & Digital Badge 사업으로 세분된다.

디지털 인증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증명서, 사설인증서 관련 서비스 구축 및 검증 사업으로, 신원/자격을 발급해 주고 검증해주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제품/브랜드로 OmniOne CX, OmniOne Digital ID, OmniOne Enterprise가 있다.

NFT & Digital Badge 사업은 실물 기반의 유틸리티 NFT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디지털 학습 이력과 경력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된 메타 데이터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제품/브랜드로 OmniOne Badge, OmniOne NFT가 있다.

라온시큐어 제품/브랜드

AI 계정관리 플랫폼	AI 보안·인증 플랫폼(모바일·PC)	Web3·블록체인 플랫폼	화이트해커 컨설팅 / 인증 서비스	AI·가상융합 실습 서비스
ONEPass MFA 지원 통합 인증 플랫폼 국내 생체인증 시장 1위 (점유율 80%)	TOUCHEN mTranskey 가상 키패드 솔루션(POC/E2E) 국내 키보드보안 시장 점유율 1위	OmniOne Digital ID 신원 자격 발급·검증 플랫폼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DID 시스템 적용	라온 Risk Proof 서비스 프리미엄 모의해킹 및 솔루션·서비스 검증 서비스	RAON Metademy 세계 최초 AI·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플랫폼 총 33개 콘텐츠 / 25개 CP사 / 연세대·충북대·서울여대 등 12개 기관 계약
ONEGuard 엔터프라이즈 통합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국내 MDM 솔루션 최초 구글 추천 제품 등재	TOUCHEN mVaccine 모바일 백신 솔루션 모바일 백신 사용자 2,000만 +	OmniOne Enterprise 구축형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 4,500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술로 구현	라온 IS 컨설팅 세계 3대 해킹대회 석권 화이트해킹팀 보유한 국내 유일 국가 지정 서비스	라온 CTF 실습형 해킹·보안 교육 서비스
TOUCHEN Wiseaccess 통합계정 권한 관리 플랫폼 국제형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된 검증된 안정성	TOUCHEN Appiron APP 위변조 방지 솔루션 GS 인증 등급 보유	OmniOne Badge 국제 표준 디지털 배지 플랫폼 국제 표준 규격 오픈배지 2.0 인증 획득	스마트앤티피싱 피싱 사기 방지, 차단 서비스 AI 피싱 패턴 탐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라온 모바일 시큐리티 화이트해커가 만든 내 폰의 보안관 AI 기반 답변이력 탐지 가능
OmniOne Access 클라우드 통합계정 관리 플랫폼	Key Wireless	OmniOne NFT 유틸리티 NFT 마켓플레이스 MAU 1만명 / 국내 최초 유틸리티 NFT	USIM스마트인증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USIM 인증서 저장 서비스 이동통신사 스마트인증 사용자 100만+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고객은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금융사, 대기업 등

라온시큐어의 주 고객은 국내
1,000여개 주요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금융사, 일반 대기업 등

라온시큐어는 국내 1,000여개 주요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금융사, 일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 공공기관, 금융사 고객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 고객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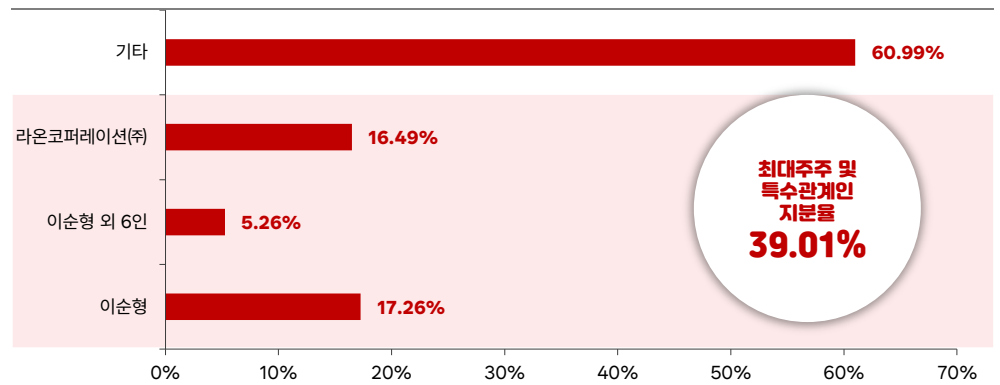
**라온시큐어의 최대주주 등은
이순형 외 7인으로, 동사 지분
39.01% 보유 중**

㉠ 최대주주 등은 이순형 대표이사 외 7인

라온시큐어 최대주주는 이순형 대표이사로 라온시큐어 지분 17.26%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은 이순형 대표이사 외 7인으로, 1Q26말 기준으로 라온시큐어 지분 39.01%를 보유 중이다.

이순형 대표이사는 201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 직을 맡아오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1970년생으로, 소프트웨어 경영총괄 부사장을 거쳐 라온시큐어를 창업했다. 그는 현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라온시큐어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라온메타, 라온벤처스, 관계사 라온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 직도 겸임하고 있다.

라온시큐어 주주 현황



주: 1Q26 기준,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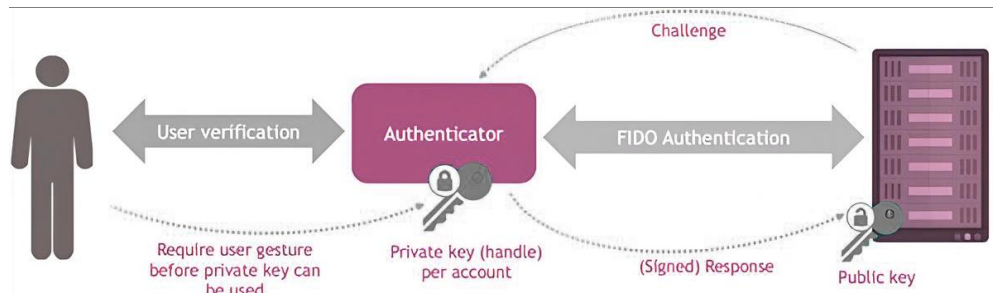
**FIDO(Fast Identity Online)는
패스워드의 한계를 보완을 위해
설계된 공개키 암호 인증 표준**

사이버 침해사고의 상당수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보다 탈취·유출된 인증정보에서 출발한다.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기억해야 하는 특성상 단순히 설정되거나 여러 서비스에서 재사용되기 쉽다. 또한, 서버에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버 침해 시 대량 유출 위험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피싱 공격에도 취약하다. 이는 패스워드 기반 인증이 가진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있다.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공개키 암호 기반 인증 표준으로, 서버에 인증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구조이다. 사용자가 기기에서 생체정보(지문·얼굴) 또는 PIN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기기는 내부에 저장된 개인키로 서명을 생성하고 서버는 사전에 등록된 공개키로 이를 검증한다. 생체정보 자체는 기기를 벗어나지 않으며 서버에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버가 외부로부터 침해되더라도 공개키만 유출될 뿐 인증위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인증키가 사이트별로 분리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가짜 사이트에서 탈취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재사용하는 피싱 공격도 차단할 수 있다. FIDO는 패스워드의 주요 취약점인 기억 의존성, 서버 저장 리스크, 피싱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인증 방식이다.

패스키(Passkey)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부터 FIDO 표준을 소비자용으로 구현·동기화한 형태이다. 패스키는 한 기기에서 등록하면 동일 생태계 내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계기로 FIDO 기반 인증의 채택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FIDO 인증 프로세스



자료: FIDO 얼라이언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FIDO 인증 시장은

2026년 27억 6천만 달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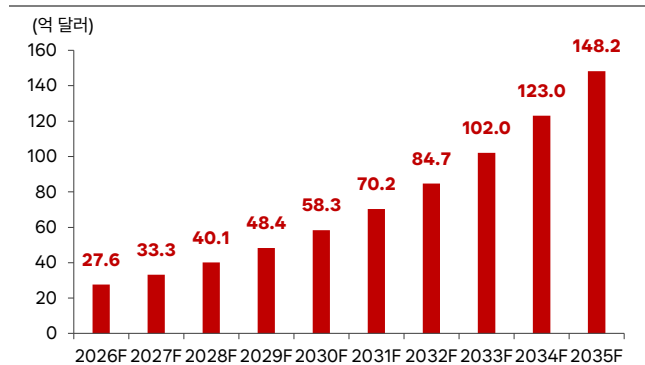
2035년 148억 2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20%로 성장 전망

글로벌 FIDO 인증 시장은 2026년 27억 6천만 달러에서 2035년 148억 2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20%로 성장할 전망이다. 패스키 확산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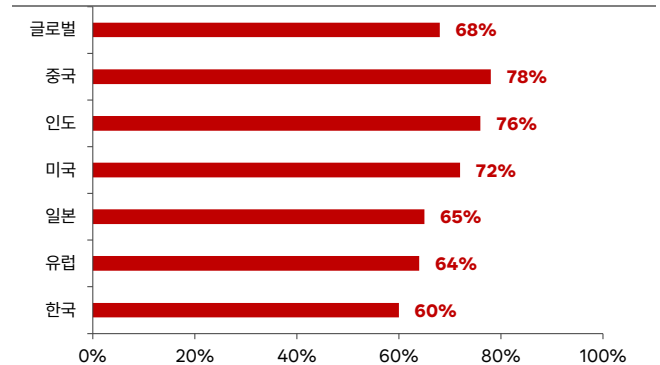
FIDO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전세계에서 활성 사용 중인 패스키는 약 50억 개로 추정된다. 인증 건수 기준으로도 월 13억 회 수준으로 1년 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또한 글로벌 상위 100대 웹사이트의 48%가 패스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치이다. 기업 영역에서도 패스키 채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6년 기준 글로벌 기업의 68%(미국 72%)가 패스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시스템은 한번 도입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채택률은 향후 고정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FIDO 인증 시장 규모



자료: Marketgrowthrepor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패스키 도입 현황



자료: FIDO Alliance: The state of Passkeys 2026,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도입 완료, 도입 진행, 시범 운영 합산 수치

국내 FIDO 인증 시장은

제도 변화가 시장 형성의

출발점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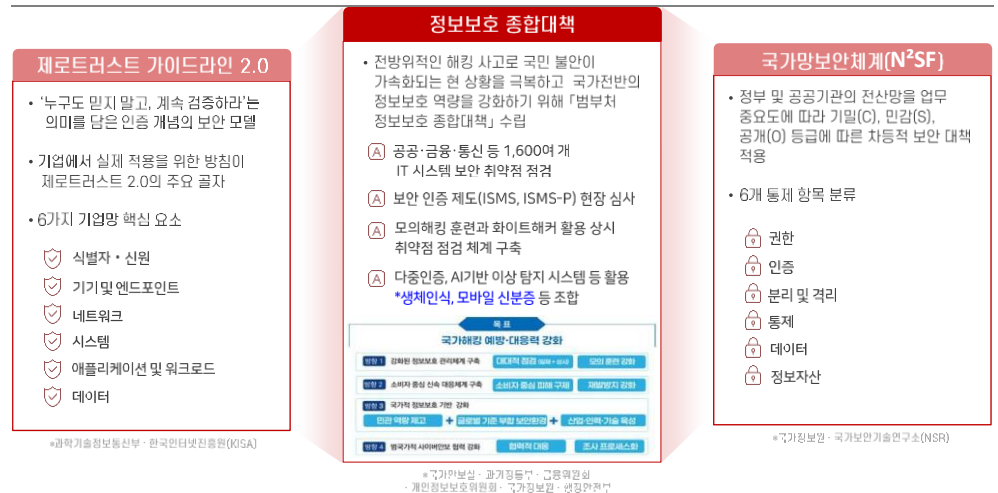
국내 FIDO 인증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제도 변화가 시장 형성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주요 분기점은 2020년 12월 시행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고 민간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민간인증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카카오톡·네이버 인증서는 각각 누적 가입자 4,0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PASS 인증서는 가입자 3,5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서비스들은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인증을 적극 활용하면서 FIDO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특히 금융·통신·플랫폼 서비스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제도화되면서 FIDO 기반 인증의 활용 기반도 확대됐다. 금융권 역시 2016년 생체인증 도입 이후 FIDO 기반 인증을 확대하며 사실상 표준 인증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2025년은 인증·신원·접근통제 시장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였다. S사 유심 정보 유출, K사 소액결제 사고, L사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증 체계와 접근권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특히 C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보다 퇴사자의 접근권한이 적절히 회수되지 않은 내부통제 실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며, 신원 기반 접근통제와 계정·권한관리(IAM)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연쇄적인 침해사고는 정부의 제도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다중인증(MFA) 확대와 생체인식·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과 국가망보안체계(N*SF) 역시 '식별자·신원'을 핵심 보안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신원·접근통제 시장에 대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관련 산업의 중장기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보호 종합대책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FIDO 시장은 표준 중심 산업으로 레퍼런스 기반 진입 장벽을 형성하며 인증 이용량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

FIDO 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중심 산업이다. 인증 서비스는 기기와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FIDO 얼라이언스가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삼성전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패스키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국내는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제도가 추가로 결합된 구조이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와 경험, 국내 제도 구현 역량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높은 전환비용과 레퍼런스 기반의 진입장벽을 가진다. 인증 시스템은 보안성 검증과 규제 준수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자 교체가 쉽지 않다. 특히 국내 공공·금융 시장은 보안 적합성 검증과 조달 절차가 요구되어 기존 구축 사업자의 지위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구축 실적과 운영 경험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증 이용량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다. 솔루션 도입 주체는 기업·공공기관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일반 국민으로, 사용자 기반 확대가 곧 인증 트래픽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국내는 휴대폰 본인확인인 PASS 인증 등 건별 과금 모델이 정착되어 있어 인증 이용량 증가가 매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구축형 매출 중심에서 사용자 기반 과금 및 구독형 모델 비중이 확대될수록 반복 매출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

넷째, 보안 사고와 규제가 수요를 견인하는 산업이다. 국내 시장은 빅테크 중심의 자발적 패스키 확산보다 침해사고와 정책 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형 보안 사고 이후 다중인증(MFA), 디지털 신원인증, 계정·접근권한관리(IAM)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규제 역시 지속 강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 성장 수혜가 일정한 경쟁 우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표준 대응 역량, 공공·금융 구축 레퍼런스, 대규모 인증 사용자 기반, 건별 과금 체계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ID 시장 현황

**디지털 ID는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인증하는
전자적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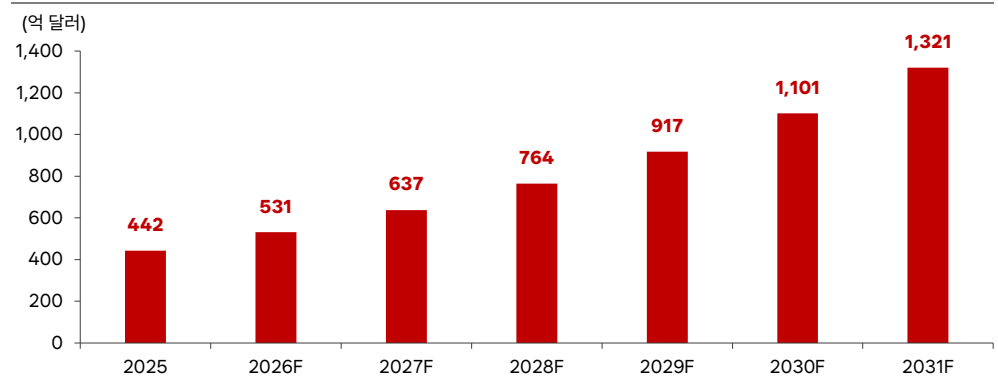
디지털 ID는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인증하는 전자적 수단을 의미한다. 전자서명, 생체인식, 스마트카드,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며, 통상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다. FIDO 인증이 "현재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된 본인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기술이라면, 디지털 ID는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ID는 발급자(Issuer), 보유자(Holder), 검증자(Verifier) 세 주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발급자는 정부, 대학, 협회 등 신원·자격 정보를 발급하는 기관이며, 보유자는 이를 자신의 기기에 저장한 개인, 검증자는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은행, 상점, 공공기관 등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필요시 디지털 신분증을 제시하면, 검증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구조로, 실물 신분증의 활용 방식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형태다.

정보 저장 방식에 따라서는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된다. 중앙집중형은 국가 또는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중앙 서버에 보관하고 검증시 이를 조회하는 방식이며, 분산형은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채택한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는 대표적인 분산형 모델에 해당한다.

디지털 ID는 실물 신분증 대비 편의성,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디지털 ID는 실물 신분증이나 지갑 없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암호화 기술과 생체인식을 결합하여 위·변조 및 도용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특징이다. 실물 신분증은 제시될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여러 정보가 동시에 노출되지만, 디지털 ID는 성인 여부와 같이 필요한 정보만을 증명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ID는 개인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디지털 ID 관련 자기정보 통제권과 선택적 정보 공개를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ID 시장 규모



자료: MarketsandMarke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디지털 ID 시장은
2025년 442억 달러에서
2031년 1,321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

글로벌 디지털 ID 시장은 2025년 442억 달러에서 2031년 1,32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 신원도용 및 사이버 범죄 증가, 국가 단위 디지털 신분증 사업 확대, 강화되는 규제 준수 요구 등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꼽힌다. 이 시장의 특징은 수요의 상당 부분이 정부 주도로 창출된다는 점이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ID를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국가 디지털 인프라로 인식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시장이 민간의 자발적인 채택에만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제도와 표준을 통해 확산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이다. EU는 2024년 5월 발효된 eIDAS 2.0 규정(EU 2024/1183)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이 유럽 디지털 신분지갑(EUDI Wallet)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지갑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 의료정보 등 다양한 자격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2027년부터는 은행, 통신, 의료, 교통 등 주요 산업과 대형 플랫폼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 서비스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디지털 ID 활용을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 세계 최대 규모 정책 변화로 파악된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州) 단위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도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ID의 발전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인도·싱가포르 등은 일찍 디지털 ID를 도입하여 높은 보급률을 달성했으나, 정부가 신원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본인 확인에 초점을 둔 초기 모델에 가깝다. 반면, 최근 글로벌 흐름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보유·통제하고 자격 증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EU는 아직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상당수 국가는 법제 정비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즉 글로벌 시장은 차세대 디지털 ID 시대로 전환하는 초입에 있으며, 실제 전국민 단위 운영에 진입한 국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EU eIDAS 2.0

사점	내용
2021.06	유럽집행위원회, eIDAS 개정안 발의
2023.11	EU 의회·이사회, 규정 최종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달
2024.02	유럽의회, 규정(EU) 2024/1183 공식 채택
2024.05.20	규정 발효
2024 말	핵심 이행법(Implementing Acts) 채택 — EUDI 지갑의 기술 사양보안 표준·상호운용성 규칙 규정 (회원국 시한은 주요 이행법 발효 후 약 24개월)
2026 말	회원국, 국민·기업에 인증된 EUDI 지갑 최소 1종 제공 의무
2027 말	은행·의료·통신·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 의무 대상 민간이 EUDI 지갑을 인증 수단으로 수용 의무
2030 말	EU 시민 80%가 디지털 신원 지갑 보유

자료: EU,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국은 모바일 신분증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DID를 적용한
국가 단위 신원 검증 체계 운영 중**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비교하면 한국은 디지털 ID의 구축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과 활용 단계에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디지털 ID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확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DID를 적용한 국가 단위 신원 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국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로드맵은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 국가보훈등록증(2023),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및 디지털 배지(2024)로 확대되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시범 발급 이후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26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까지 추가되면서 국내 주요 공공 신분증의 디지털 전환은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민간 개방이다. 정부는 2024년 삼성윌렛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민간 개방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삼성윌렛,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스타뱅킹 등 주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누적 발급 건수는 2026년 기준 약 730만 건에 이르렀다. 사용자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다수 은행이 계좌 개설과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했으며, 관공서, 금융기관, 공항, 편의점 등 실생활 전반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로드맵

구분	발급 개시일
모바일 공무원증	2021.01.14(세종, 서울청사) / 2022.09.29(전국)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07.28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08.01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2024.07.03(시범발급, 이후 대사관별 순차적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5.03.1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026.01.22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모바일 신분증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 확인 수단을
넘어 디지털 자격증과 전자증명서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가 발급한 신원·자격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신원 인프라이다. 따라서 산업적 관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업 핵심은 신분증 발급 자체보다 이를 활용한 검증 서비스에 있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급은 공공재이지만 수익은 검증에서 발생한다. 국가 신분증의 발급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해 반복 수익이 제한적이다. 반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플랫폼 사업자 등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검증 솔루션과 인증 인프라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의 핵심 지표는 발급량 자체보다 검증 호출량이며, 발급량은 향후 검증 시장 규모를 가능하는 선행지표로서 기능한다.

둘째, 국가 인프라 특유의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성 검증,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구축된 사업자를 쉽게 교체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 단위 신원 인프라 구축 레퍼런스는 후속 사업 수주와 신규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레퍼런스를 확보한 사업자가 장기간 시장 우위를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모수 선행-수익 후행 구조를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자가 늘어날수록 검증 수요가 증가하고, 검증처가 확대될수록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다시 발급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에는 발급 확대가 중심이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보급률에 도달하면 검증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 확인 수단을 넘어 디지털 자격증과 전자증명서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각종 공공 증명서 등이 모바일 신분증 체계와 연계될 경우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연령확인(Age Verification)과 같이 특정 정보만 선택적으로 증명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신분증의 검증 기능은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로 확장될 전망이다.

투자포인트

1 모바일 신분증(블록체인 기반 Digital ID 사업) 사업 성장성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신분증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 구축

라온시큐어의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기대된다.

라온시큐어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 Digital ID 사업을 상용화한 이래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2024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디지털 배지 등을 발급하여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는 실물 신분증과 온라인 상의 인증서 기반 신원 증명으로 이원화된 신원 증명 체계를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로 구축한 것이었다.

2025년 3월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 단위로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25년 7월에는 네이버페이 등 5대 민간 플랫폼으로 발급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아갔으며, 2026년부터는 각종 병원, 공공기관, 금융사, 이커머스업체, 교육기업 등으로 그 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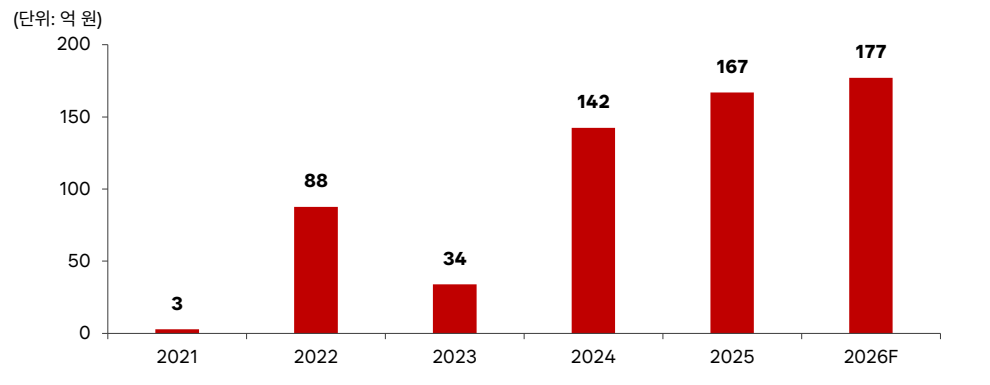
라온시큐어 모바일 신분증 사업 현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병무지갑 발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국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디지털 배지 발급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예상)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Digital ID 사업을 포함한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액의 성장 추이와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NFT 관련 매출액은 연간 5억 원 미만으로 미미하므로,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액이 대부분 Digital ID 사업 매출액인 상황이다. 라온시큐어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액은 2024년 142억 원으로 전년 34억 원에서 급성장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2026년 블록체인서비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 성장한 177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최근 성장세가 가팔랐던 만큼 기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인 시각으로 예상한 수치이다.

라온시큐어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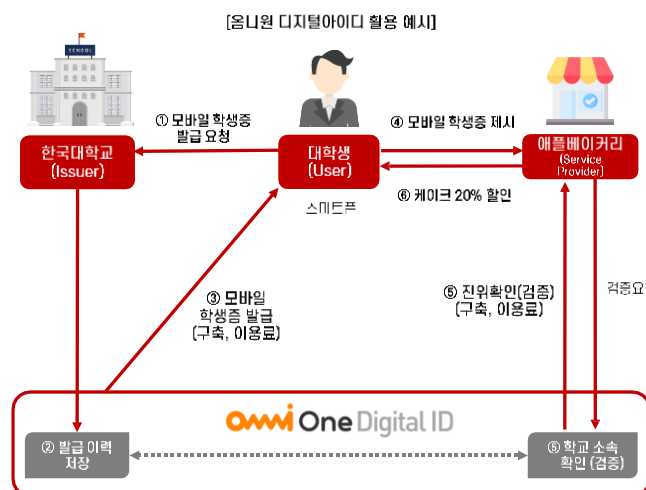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Digital ID 사업은 1차적으로는 구축 관련으로, 이후에는 검증 수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블록체인 Digital ID 기반의 신원 인증과 자격증명 발급, 관련 검증 관련 매출액은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아래 그림은 블록체인 DID 기반 신원 인증과 자격증명 통합 SaaS 플랫폼을 활용하는 예시를 든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유저는 먼저 모바일 학생증의 발급을 대학교에 요청하고, 대학교는 동사를 통해 발급 이력을 저장하며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후 소매점 등에서 모바일 학생증을 제시하여 제품/서비스 관련 할인 등을 신분증 진위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지연 없이 모바일 상에서 빠르게 인증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저는 물론 발급 기관과 소매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모두 편리하게 충족 가능하다. 실생활 속에서 각종 크고 작은 자격 인증/확인인 수시로 일어나는 일상인만큼, 동 사업의 확장 잠재력은 클 수 있다.

블록체인 Digital ID 기반 신원 인증, 자격 증명 프로세스

블록체인 DID 기반 신원인증·자격 증명 통합 SaaS 플랫폼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서비스 확대



ISIC 국제학생증 오픈



의료인 디지털 신분증(자격증명) 발급 업무 협약



대학교 디지털 신분증명 및 증명발급 확대 사업 협약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모바일 신분증 관련 레퍼런스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타진

라온시큐어는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 정부 및 동남아 지역 정부들과 접촉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다. 동사는 국내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관련 레퍼런스를 既 확보한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인다. 1차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동사 사업을 활발히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다. 아직 시기를 단정하기엔 이르나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향으로 동 사업 수주 시에는 첫 해에 매출액 100억 원 내외는 발생이 가능하다. 수주 노력을 지속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련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바일 보안 관련 솔루션 사업으로 일본 지역 사업 확대 지속 중

한편, 라온시큐어의 글로벌 사업 확대 의지는 일본 지역 공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사는 솔루션 사업(모바일 보안 관련)으로 일본 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를 지속 중이다. 라온시큐어는 일본 디지털 신원 인증/검증 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 SBI그룹 계열사인 SBI Sumishin Net Bank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동사는 2024년 SBI Sumishin Net Bank에 TouchEn OnePass를 공급하였다. 또한 파트너십 활용을 통해 일본 내 생체인증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마침 2025년 4월 일본 자본시장에서 해킹 사고가 있었고, 그 부정거래액 규모가 한화 기준으로 5조 원대 규모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 증권업협회에서 신원 다중인증 권고가 강해졌고, 동사의 관련 기술력과 납품이력이 현지에서 부각되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일본 지역 생체인증 비즈니스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디지털 신원 인증/검증 시장 확대 기대



일본 현지 파트너를 통한 '다중인증(생체인증)' 판로 확대
SBI그룹 계열사 '스미신SBI네트은행'에 터치엔 원패스(MFA) 공급중
파트너십 활용을 통한 일본 시장 내 생체인증 시장 공략

일본 디지털 자격증명 시장 공략
사이버링크와 올니원 디지털아이디 기반
디지털 자격증명 발급 사업 권이선스 계약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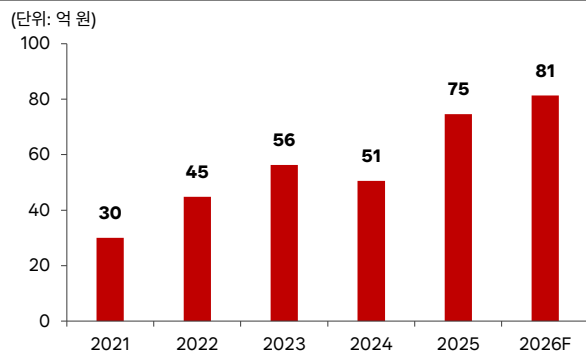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 성장 기대

라온시큐어는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모의해킹 전문 기업

동사의 화이트햇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라온시큐어는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모의해킹 전문기업으로, 국가 지정 정보보호 전문기업으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조). 이러한 성장 이유는 1) 높은 기술력(세계 3대 해킹 방어대회 수상 등), 2) 국내 인증 획득으로 인한 신뢰성 확보(정보보호 관리체계 국가 인증인 ISMS 인증 보유), 3) 레퍼런스 효과(국내 공공기관, 통신사 등 컨설팅 이력 보유) 등에 기인한다.

라온시큐어 화이트햇 컨설팅 최근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라온시큐어 화이트햇센터 강점

RAON 라온 화이트햇센터		
국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상장사 유일 프리미엄 모의해킹	ISMS/ISMS-P 컨설팅 노하우
-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업무 및 대책 수립 - 주요 공공기관, 통신망, 금융망 등 컨설팅	- 상장사 중 유일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 세계 3대 해킹 방어 대회 및 국내 최고 권위 대회 석권 - 정부기관 정보보호 자문 위원 다수 활약	- ISMS 인증을 획득한 최고의 신뢰성 - 축적된 컨설팅 및 운영 노하우 -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사이버 해킹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사이버 해킹 사고는 2022년 1,142건 발생에서 2023년 1,277건으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관리가 공공기관, 기업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화이트해커 기반의 모의해킹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온시큐어는 프리미엄 모의해킹과 정보보호 인증지원 컨설팅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매출액은 견조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동사 화이트햇 컨설팅 연매출액은 2022~2024년 45~55억 원대에 머물렀으나, 2025년 75억 원으로 증가했다(전년 대비 +47%). 국내 해킹 사건의 구조적인 증가 추세 등에 따라 동 사업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년 기저 효과를 감안하여 2026년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액을 81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를 전망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신사업(양자내성암호, 에이전틱 AI 관련) 성장 기대

신사업인 양자내성암호, 에이전틱 AI 관련 매출 성장이 기대

중장기적으로 신사업인 양자내성암호, 에이전틱 AI 관련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다양한 양자내성암호 관련 솔루션 개발로 시장 개화에 대비

✓양자내성암호(PQC) 솔루션 성장 기대

시장조사기관 Growth Market Reports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양자내성암호 시장은 12.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양자산업 관련 육성 의지 및 관심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과학기술 예산은 2024년 1,285억 원이었고 2025년은 1,98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요도를 감안, 예산이 50% 이상 증가한 모습이었다.

라온시큐어는 양자내성암호 관련하여 다양한 솔루션(브랜드명 Quantum 플랫폼 등 5종)을 개발하여 시장 개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사의 모바일 통합 PKI 전자서명 솔루션인 'Key# Wireless'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Key# Wireless 솔루션은 모바일 환경에서 데이터 무결성 암호/복호화, 사용자 및 데이터 인증 전자서명, 인증서 중계 기능 등 PKI 기반 암호화와 전자서명을 지원하며,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E2E 구간암호화를 통해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암호 해독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동 솔루션 강점은 1) 향상된 보안성, 2) 확장성, 3) 사용자 편의성, 4) 양자컴퓨팅 환경 대응력 등이다.

Key# Wireless 장점

01

향상된 보안성

Session ID를 이용해 Replay attack을 방지하고 암호화된 인증서는 중계 서버로의 복호화가 불가능합니다.

02

뛰어난 확장성

Android, iOS 모두 지원하고 Native App과 Hybrid App 모두 적용 가능하여 간편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03

사용자 편의성

별도의 App 설치 필요없는 라이브러리 형태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04

양자컴퓨팅 환경 대응

양자 알고리즘 및 SNDL Attack에 안전한 암호체계인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하여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한 취약성 강화 및 양자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최근 KDB생명보험에 양자내성암호(PQC) 솔루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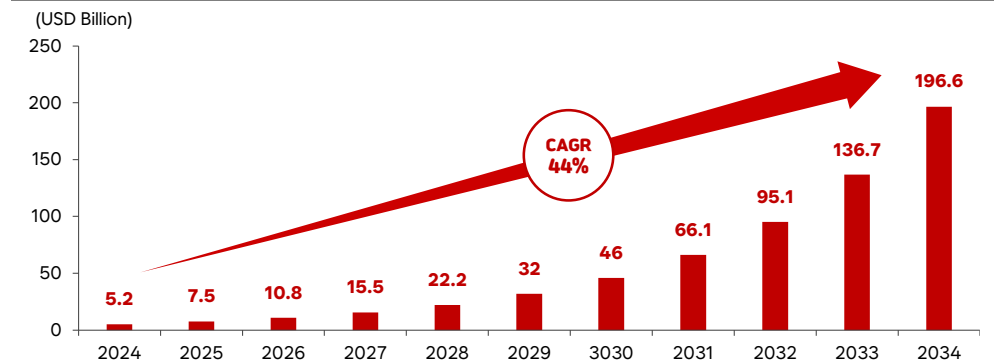
최근 라온시큐어는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공급 소식을 전했다. 26.06.05 동사는 KDB생명보험에 양자내성암호(PQC)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다수 언론 등에 밝혔다(공급금액 미공개). 라온시큐어 ‘키샵크립토(Key# Crypto)’는 양자컴퓨터 공격을 방어할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형 암호모듈화 솔루션이다. 라온시큐어는 PQC 기반 인증·구간암호화·전자서명·입력보안 등 완성형 보안 솔루션 등도 제공하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현재 KDB생명보험 외 10곳 이상의 국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일부 공공기관 등과 양자보안 관련 신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구축 사업은 아직 시장이 태동기인 만큼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으나, 동사는 이미 2024년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긍정적이다. 중장기적으로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수요는 점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

4Q26F AI 에이전트 기반 보안 자동화 플랫폼 출시 예정

✓에이전트 AI 기반 보안 자동화 플랫폼 성장성 기대

AI의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생성형 AI가 2022년경부터 본격화된 이래,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점차 대중화되는 상황이다. AI 에이전트는 생성형 AI와 달리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비서’로서 기존 생성형 AI와 차별화되어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에이전트 AI도 향후 대중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이전트 AI 시장은 2024년 52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 1,966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Market.US).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기업 및 금융, 공공기관 업무에서 에이전트 AI 수요는 향후 급증할 수 있다.

글로벌 에이전트 AI 시장 전망



자료: Marketus, 라온시큐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전트 AI는 사람처럼 판단하는 나의 또다른 대행자가 생기는 개념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한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이다. 편의성과 비용절감 효과 등으로 향후 관련 시장은 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관련 보안 수요도 급증할 개연성이 높다. 에이전트 AI가 자칫 권한 오남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 니즈는 점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AI 기반 보안 자동화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벤트 처리량 급증과 보안담당자 인력 부족 심화, 복잡화되는 공격 루트 등으로 인해 AI 기반 보안 자동화는 중장기적으로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환경 하에서 라온시큐어는 AI 에이전트 기반 보안 자동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인간의 명령을 AI 보안담당자가 이해하고 분석하여 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판단, 보안 분석과 관련 조치를 담당할 수 있다. 동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과 지난 5월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피지컬 AI에 아이디어를 부여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여러 실증 연구를 시작하였다. 동사는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AI 보안담당자를 만들려는 계획이며, 관련하여 4Q26에 솔루션을 출시하고, 2027년부터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027년 이후 동사 성장성을 높일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온시큐어는 아래와 같이 에이전틱 AI 관련 5대 솔루션 라인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권한 인증 및 관제/통제가 그 주 목적이며, 국내에서 에이전틱 AI 보안 관련해서는 동사가 선도적인 지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전틱 AI 위험

Agentic AI 오작동·탈취 위험	미토스, 에이전틱AI 통제 필요성 부각	AI 에이전트 권한 취약점 확대 경고
Viral AI personal assistant seen as step change - but experts warn of risks OpenAI is billed as 'the AI that actually does things' and needs almost no input to potentially wreak havoc  •The Guardian (2026.02.02)	What is Mythos AI and why could it be a threat to global cybersecurity? Anthropic's decision to restrict access to its powerful new model increases fears about the advanced technology  •The Guardian (2026.04.22)	Love and hate: tech pros overwhelmingly like AI agents but view them as a growing security risk AI agents need to be monitored just like regular employees, report warns  Image Credit: Pixabay (Image credit: Shutterstock) •techradar.com (2025.06.08)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라온시큐어 에이전틱 AI 5대 솔루션 라인업

Agentic AI Security Platform

AASP

자율보안 컨트롤 타워

- 자연어 명령 기반 보안운영 자동화
- 계정라이프사이클 (입사, 이동, 퇴사) 자동화
- 이상행위 AI 탐지 및 관제
- OmniOne Access, WiseAccess, Onepass 연계

Agentic AI Guardrail

AAG

AI 세이프 가드

- 악성프롬프트, Jailbreak 공격 실시간 탐지
- 개인정보(PII) 자동 식별, 인접화 마스크
- 한국어 특화 모델 기반 유해콘텐츠 차단
- AI 보안 규정 위반 탐지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Agentic AI Management

AAM

AI 신분증

- AI 에이전트/로봇 신분증 발급 및 생체주기 관리
- 에이전트 간 상호 인증
- 권한 기반 활동 범위 제어
- 감사 추적 및 책임 귀속

Agentic AI Data Labeling

AADL

AI 데이터 라벨러

- AI 학습용 데이터의 민감도 자동 분류
- 개인정보·영향정보·일반데이터 구분
- 데이터 보호 정책의 자동 적용
- 규제 준수(API 분할, 개인정보보호법) 지원

Agentic AI Hacker

AAH

AI 모의해커

- 모의침투 전문 PTO 확보
- 최신 기술으로 연간 상시적 / 반복적 모의침투
- 공공, 금융기관 등 로컬모의침투(AI) 검증
- 민간, 기업대상 최신 클라우드 모의침투 검증
- 모의침투 관제형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공

RAON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2025년 실적 Review**

**2025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638억 원(+2.0% YoY),
28억 원(+41.4% YoY) 기록**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38억 원, 28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 625억 원 대비 2.0% 성장한 638억 원을 기록했다. 예정되었던 일부 프로젝트들이 계엄 사태 (24.12.03) 이후 진행이 다소 지연되며 1H25 실적이 매출액 248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기대 대비는 부진했던 점이 낮은 성장의 원인이었다.

부문별로 매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솔루션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4년 368억 원에서 2025년 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역성장하였다. 통합접근관리 제품이 전년 대비 성장했으나, PC보안, 모바일 보안, 유비쿼터스 PKI, 기타 제품이 감소했던 것에 기인했다. 특히 솔루션 사업 중 매출이 가장 큰 모바일 보안이 전년 매출액 203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역성장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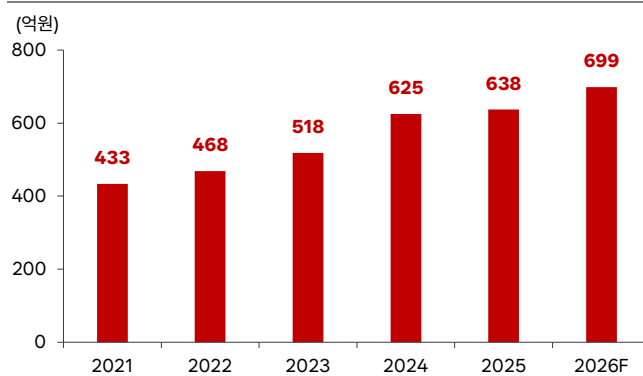
서비스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4년 257억 원에서 2025년 3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성장했다. 세부적으로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액이 전년 51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IDaaS 매출액이 전년 64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액이 전년 142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고르게 성장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20억 원 대비 41.4% 증가한 2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판관비는 증가했으나, 일부 고마진 프로젝트 효과와 제품믹스 개선, 일부 개발비 감소 등이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영업이익률은 2024년 3.1%에서 2025년 4.4%로 1.3%p 상승했다.

참고로 2025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43.6%, 51.9%를 기록하여 2024년 대비 매출원가율은 4.1%p 개선되고, 판관비율은 2.8%p 악화되었다. 2024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47.7%, 49.1%였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매출원가의 경우 2024년 298억 원에서 2025년 278억 원으로 20억 원 감소했고, 판관비의 경우 2024년 307억 원에서 2025년 331억 원으로 24억 원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즉 2025년 전년 대비 매출원가는 블록체인 사업 관련 일부 개발비 감소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판관비는 인력 증가 등 원인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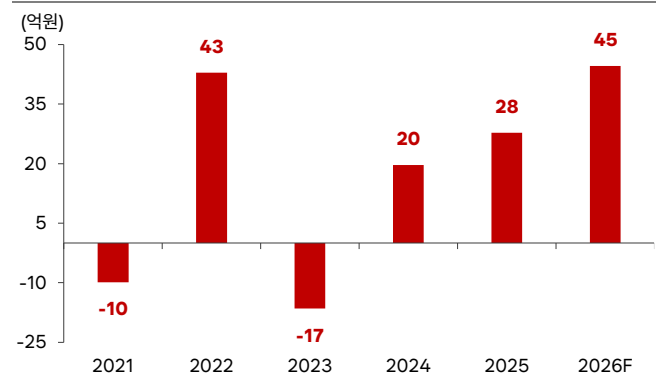
지배주주 순이익은 2025년 34억 원을 기록, 전년 40억 원 대비 6억 원 감소했다. 2025년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억 원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기타영업외비용이 전년 5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약 17억 원 증가한 영향에 기인했다. 기타영업외비용의 큰 폭 증가는 2025년 동사가 한국디지털인증협회에 기부금으로 19억 원을 지급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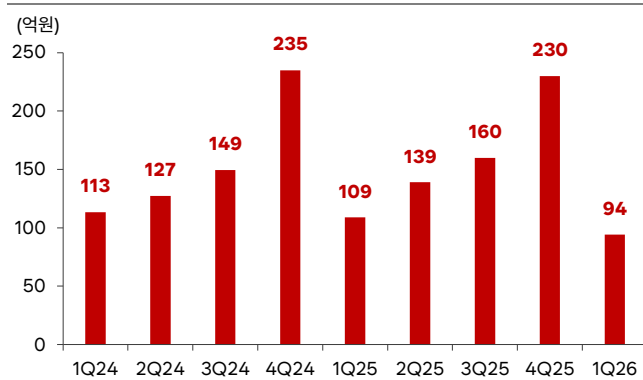
2026F 실적 전망

**1Q26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4억 원(-15.5% YoY),
-21억 원(적자지속) 기록**

1Q26 매출액은 94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매출액 109억 원 대비 15.5% 역성장했다. 기존 연결대상이었던 '인비즈넷'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인해 1Q26 인비즈넷 매출액 25억 원이 인식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인비즈넷 1분기 매출액 영향을 제외한 기존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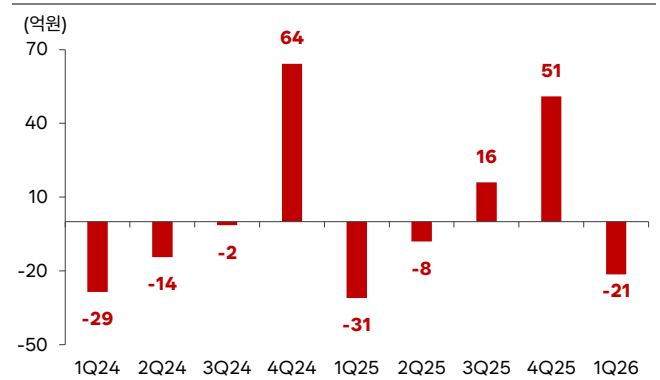
1Q26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1억 원 대비 개선된 -21억 원을 기록했다. 각종 사업의 효율화 및 수익성 중심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다. 동사에게 통상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매년 1분기 적자를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쏠리는 특징이 완연하다.

분기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99억 원(+9.6% YoY),
45억 원(+60.4% YoY)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99억 원(+9.6% YoY), 45억 원(+60.4% YoY)으로 전망한다.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솔루션 사업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350억 원일 전망이다. 동 사업 부문은 전년의 역성장으로 인해 기저가 낮은 상황에서 통합접근관리, 모바일 보안 분야 중심으로 2026년엔 수요가 견조할 전망이다. 다시 성장이 기대된다.

서비스 사업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353억 원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전년 대비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은 9.0% 성장을, IDaaS 매출은 11.0% 성장을,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은 6.0% 성장을 추정하였다. 이 중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과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나, 2026년도 실적 추정 시에는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는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의 경우 국내 경기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블록체인서비스 매출의 경우 해외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에도 매출액은 상저하의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라온시큐어는 특히 4분기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매출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 고객들이 보안 관련 예산 집행 등을 4분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4% 성장한 45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매출액 성장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등으로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기대된다. 다만, 신사업 준비와 기존 사업 일부의 규모의 경제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되 그 폭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6.4%로 전망하여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 4.4% 대비 2.0%p 개선을 전망한다.

2027년 이후 만약 동남아 등 해외 지역에서 블록체인서비스(모바일 신분증) 수주 및 매출이 발생한다면 동사 매출액과 수익성은 한 단계 레벨업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434	468	518	625	638	699
① 솔루션 사업	314	315	412	368	316	350
② 서비스 사업						
화이트햇 컨설팅	30	45	56	51	74	81
IDaaS	53	59	70	64	86	95
블록체인서비스	3	88	34	143	167	177
합계	86	192	160	257	327	353
③ 기타	34	-39	-54	-1	-5	-5
영업이익	-10	43	-17	20	28	45
지배주주순이익	-66	67	42	40	34	51
YoY 증감률						
매출액	16.7	8.0	10.7	20.5	2.0	9.6
영업이익	적지	흑전	적전	흑전	41.4	60.4
지배주주순이익	적지	흑전	-37.6	-3.5	-15.8	49.7
영업이익률	-2.3	9.2	-3.2	3.1	4.4	6.4
지배주주순이익률	-15.1	14.2	8.0	6.4	5.3	7.2

자료: 라온시큐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년 PER 17.8배로 거래 중

동사 멀티플은 코스닥 시장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

2026년 6월 19일 기준 라운시큐어 시가총액은 897억 원 수준이다. 2026F 라운시큐어의 예상 PER은 17.8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 30.1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라운시큐어는 신원 인증 및 검증 기술력을 기반으로 계정접근권한 관리, 화이트햇 컨설팅,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아톤, 파수AI, 드림시큐리티 등이 있다. 동사 Peer로는 아톤, 파수AI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기업간 비교 지표로는 2026F PER을 선택하였다.

2026F 기준 3개사의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ER 17.8배 VS 아톤 PER 10.6배 VS 파수AI PER 13.1배).

동사가 Peer 대비 상대적으로 PER 할증을 받는 것은 현재의 이익 규모보다 향후 성장성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동사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국가 단위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레퍼런스를 보유한 사업자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장이라는 신규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있다. 또한, 양자내성암호(PQC), 에이전틱 AI 보안 등 차세대 인증 영역으로의 성장동력도 보유하고 있다. 즉 동사의 PER 할증은 검증 시장 본격화와 신사업 매출화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톤 PER은 10.6배로 라운시큐어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다. 아톤은 2025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서비스 부문(핀테크 보안 솔루션, 핀테크 플랫폼, 스마트 금융) 45.4%, 제품 부문 1.1%, 연결 종속회사 51.7%, 기타 1.8%이다. 아톤은 PASS 본인 인증 서비스라는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금융 보안과 양자 보안, 금융 IT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신성장동력으로 양자내성암호 인증, 보이스피싱 방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톤의 경우 2023 ~ 2025년 기간 동안 연도별 매출액은 각각 550억 원, 654억 원, 722억 원으로 견조히 성장했으나, 연도별 영업이익이 114억 원, 144억 원, 106억 원으로 시장 기대를 다소 하회하여 동사 대비해서는 멀티플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산업 기대가 2025년 이래 생각보다 주춤하면서 이러한 점도 아톤에 대한 낮은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파수AI PER도 13.1배로 라운시큐어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다. 파수AI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가 부재하여 당사 리서치센터 수치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파수AI는 2000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이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데이터 보안 44%, 애플리케이션 보안 18%, 정보보호컨설팅 3%, 유지관리 35%이다. 파수AI는 데이터 보안 즉 문서보안 중심의 기업으로, 동사와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분야는 모의해킹(정보보호컨설팅) 사업이다. 다만 모의해킹 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3% 비중으로 미미한 편임은 참고해야 한다. 파수AI는 2024년 Wrapsody Cloud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3월에는 기업형 소규모 언어모델(sLLM) 솔루션 일름(Elm)을 출

시하는 등 AI 기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Fasoo DSP Cloud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보안 플랫폼 기능을 강화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수AI는 수년간 연매출액이 400억 원대에 머물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연도별로 감소세여서(2021년 10.0% → 2025년 5.4%) 라온시큐어 대비해서는 멀티플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9,052	7,186,860	3,712,325	3,916,545	3,934,675	11.3	15.4	9.7	0.8	1.3	2.3
코스닥	967	542,786	332,661	361,183	114,372	211.2	112.3	30.1	1.5	2.1	3.5
라온시큐어	8,080	89.7	62	64	699	28.7	30.2	17.8	2.3	1.9	1.5
아톤	4,895	120	65	68	82	12.3	98.6	10.6	1.4	1.5	1.2
파수AI	3,410	40	46	47	49	12.7	19.4	13.1	1.6	1.4	1.0
동종업종 평균						12.5	59.0	11.8	1.5	1.4	1.1

자료: Fn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1: 2026년 06월 19일 종가 기준, 주2: 파수AI의 경우 당사 리서치센터 수치 적용

모의해킹 기술력 고도화, 모바일

신분증 해외 수출 가시화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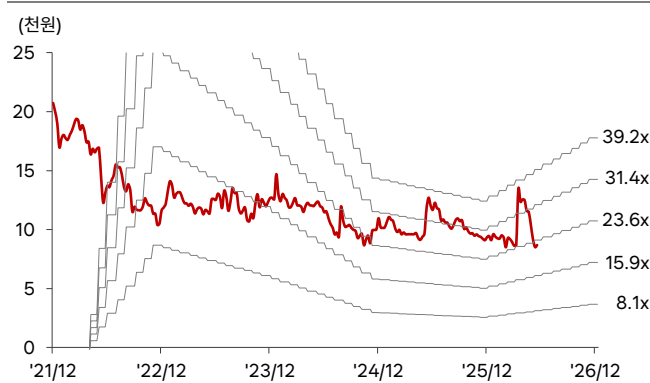
에이전틱 AI 보안 자동화 사업

표면화 시 기업가치 상승 가능

라온시큐어 주가는 2025년 연간 약 12% 하락했고, 2026년 들어서도 26.06.17 현재까지 7.1% 하락하였다. 다만, 26.04.15부터 약 1개월여 동안 라온시큐어 주가는 급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양자내성암호 관련 시장 기대감 부각 때문이었다. 즉 양자내성암호 기술에 대한 시장 관심이 점증하는 가운데, 언론 기사를 통해 라온시큐어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 동사 생체인증 서비스 월이용자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음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단기로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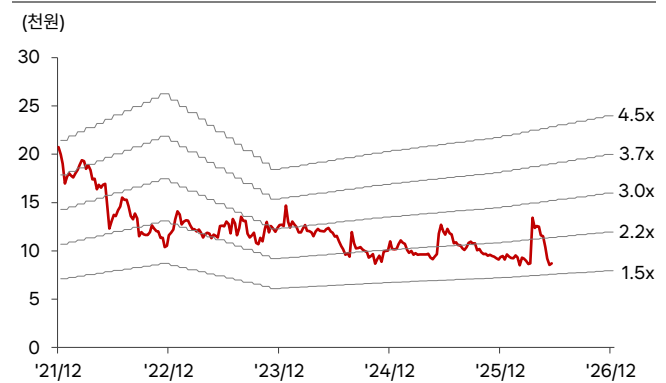
향후 모의해킹 서비스 관련 동사 기술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관련 해외 수출이 가시화되거나, 에이전틱 AI 기반 보안 자동화 관련 사업화가 뚜렷하게 표면화된다면, 동사 기업가치는 시장 소외 상황을 딛고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라온시큐어 PE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라온시큐어 PB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1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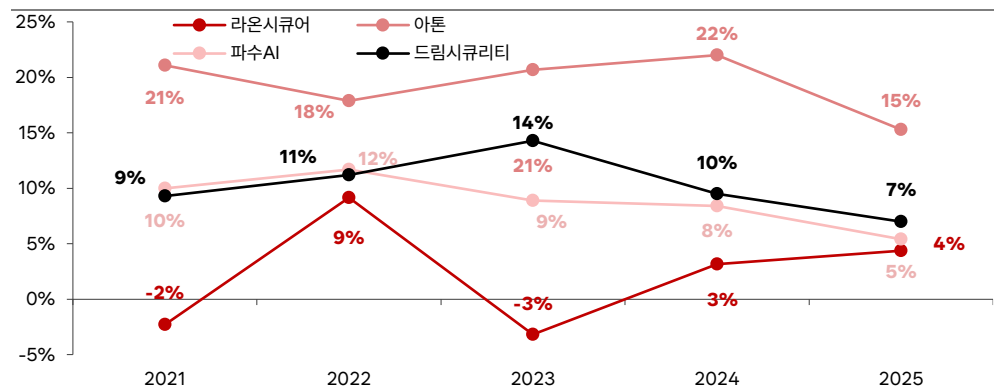
투자 집행과 신성장 사업 조성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쟁 3사 대비
낮은 영업이익률 지속 중

라온시큐어의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낮다. 2021년 이래 동사 수익성을 살펴보면, 2021~2025년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각각 -2.3%, 9.2%, -3.2%, 3.1%, 4.4%였다. 2021년과 2023년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아톤의 경우 2021~202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9.4%에 이르고, 파수AI와 드림시큐리티도 2021~202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각각 8.9%, 10.3%였다. 각 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 비중이 상이한 만큼 이는 어느정도 감안될 필요가 있으나, 전사적으로 라온시큐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동사의 경우 솔루션 사업 부문에서 약 100억 원 내외의 이익은 창출되지만 전반적인 투자 집행과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조성 등으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해외 사업 관련 성과가 뚜렷해진다면, 동사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미래 수익성 관건은 비용절감 요소 보다는 해외 사업 성장성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라온시큐어 및 경쟁 3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468	518	625	638	699
증가율(%)	8.0	10.7	20.5	2.0	9.6
매출원가	167	233	298	278	280
매출원가율(%)	35.7	45.0	47.7	43.6	40.1
매출총이익	301	286	327	359	419
매출이익률(%)	64.3	55.1	52.3	56.3	59.9
판매관리비	258	302	307	331	374
판매비율(%)	55.1	58.3	49.1	51.9	53.5
EBITDA	66	15	54	62	87
EBITDA 이익률(%)	14.2	3.0	8.7	9.8	12.4
증가율(%)	370.7	-76.9	252.8	14.9	39.6
영업이익	43	-17	20	28	45
영업이익률(%)	9.2	-3.2	3.1	4.4	6.4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41.4	60.4
영업외손익	29	67	2	-16	-4
금융수익	39	55	15	14	12
금융비용	26	40	11	9	8
기타영업외손익	16	51	-3	-21	-8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72	50	21	12	41
증가율(%)	흑전	-29.8	-57.9	-44.5	244.6
법인세비용	-11	-10	-20	-24	-10
계속사업이익	83	60	41	36	5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3	60	41	36	51
당기순이익률(%)	17.7	11.7	6.6	5.6	7.2
증가율(%)	흑전	-27.2	-32.1	-13.6	42.5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67	42	40	34	51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7	80	5	67	70
당기순이익	83	60	41	36	51
유형자산 상각비	22	29	32	32	39
무형자산 상각비	1	3	2	3	4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	-0	-53	10	-21
기타	-32	-12	-17	-14	-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3	69	122	-45	-1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4	86	87	-18	-5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	-18	-13	-9	-6
기타	-135	1	48	-18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	-274	-16	-21	-10
차입금의 증가(감소)	0	-3	3	0	-10
사채의증가(감소)	0	-20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6	-71	-19	-21	0
기타현금흐름	7	0	2	0	0
현금의증가(감소)	-165	-125	113	1	47
기초현금	368	203	78	192	193
기말현금	203	78	192	193	240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566	345	372	364	448
현금성자산	203	78	192	193	240
단기투자자산	266	99	36	38	41
매출채권	80	136	115	96	126
재고자산	3	3	1	0	0
기타유동자산	14	28	28	37	41
비유동자산	202	411	343	381	350
유형자산	14	24	26	20	-12
무형자산	12	29	25	31	28
투자자산	120	190	127	164	169
기타비유동자산	56	168	165	166	165
자산총계	769	756	715	745	798
유동부채	315	217	147	161	163
단기차입금	0	10	10	10	10
매입채무	64	80	28	31	34
기타유동부채	251	127	109	120	119
비유동부채	3	80	63	43	44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4	0	0
기타비유동부채	3	80	59	43	44
부채총계	318	297	210	204	207
자배주주지분	380	461	503	538	588
자본금	193	280	280	280	280
자본잉여금	165	167	167	167	167
자본조정 등	0	-49	-49	-49	-4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1	3	3	3
이익잉여금	21	63	103	137	187
자본총계	451	459	505	541	59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2.2	23.8	28.7	30.2	17.8
P/B(배)	2.1	3.0	2.3	1.9	1.5
P/S(배)	1.7	1.9	1.8	1.6	1.3
EV/EBITDA(배)	9.3	85.2	18.8	13.9	7.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862	519	359	302	454
BPS(원)	4,914	4,115	4,490	4,798	5,297
SPS(원)	6,055	6,457	5,577	5,689	6,27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9.3	9.9	8.3	6.5	9.0
ROA	11.0	7.9	5.6	4.9	6.6
ROIC	82.0	-134.7	29.2	78.0	97.4
안정성(%)					
유동비율	180.1	158.8	252.7	225.8	275.3
부채비율	70.5	64.7	41.7	37.7	34.9
순차입금비율	-58.9	-15.4	-26.8	-29.2	-37.0
이자보상배율	2.3	-0.7	1.9	3.3	6.5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7	0.8	0.9	0.9
매출채권회전율	5.5	4.8	5.0	6.0	6.3
재고자산회전율	325.3	188.6	339.8	963.3	2,513.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라온시큐어	O	X	X

2026년 4월 17일 투자경고 지정예고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6.23	라온시큐어-성장하고 있는 AI 보안, 인증 플랫폼 강소기업
2023.09.04	라온시큐어-디지털 인증 대중화를 준비한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